

고고학 자료와 고대 문헌 사이의 상관관계: 아마르나 시대의 게셀을 중심으로

안윤이(침신대)

1. 서론

고대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고학 자료와 고대 문서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일부 발굴된 고고학 자료들은 고대 문헌의 기록을 정확히 입증해주는 반면, 모든 문헌 기록이 고고학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게셀(Gezer)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중간 유대 산지와 쉘필라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텔 제라르(Tell Jezar)의 고대 도시다. 성경에서 게셀은 여호수아 10장에 처음 등장한다.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을 때, 여호수아가 게셀 왕 호람과 그의 군대를 전멸시켰고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멸한 31개의 가나안 왕들 가운데 하나로 게셀 왕이 언급된다. 그러나, 특이하게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처럼 게셀 성을 불태웠다는 언급은 없다. 게셀은 이후 에브라임 지파에 할당되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수

www.kci.go.kr

16:10). 남부 레반트의 고대 도시 국가 게셀은 특히 기원전 14세기 초 이집트 고대 문헌인 아마르나 서신서(Amarna Archives)에서 두드러진다. 아마르나 서신서 속 게셀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중심에 서있었다. 아멘호텝 3세(1417-1379 BCE)가 게셀 왕 밀킬루에게 보낸 최초의 서신서에는 상품 선적에 대한 대가로 40명의 아름다운 여성 술관원을 요청했다.¹ “밀킬루가 보낸 몇 서신서에는 파라오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거나 다른 가나안 왕들과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등 밀킬루 자신이 후기 청동기 가나안 도시 국가의 중요한 리더임을 설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는 게셀이 후기 청동기 시대의 중심 도시였거나 게셀에 서기관 학교가 있었음을 시사한다.”²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게셀이 이집트의 직접 통치를 받든 아니면 이집트의 봉신 국가이든 간에 팔레스타인 내 이집트 통치의 중심지였음에 동의한다.³ 출애굽 사건의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이른 출애굽 연대를 따른다면, 아마르나 서신서 속 고대 도시 국가 게셀은 여호수아 정복 전후와 사사기 시대의 게셀과 일치한다. 유진 메릴(Eugene H. Merrill)은 세겜 왕 라바유의 공격적인 정복 활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나안 정착 과정의 그림자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그러나, 오랜 발굴 기간 동안 게셀에서 출토된 고고학 자료는 아마

-
- 1 William L. Moran,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369.
 - 2 Daniel M. Master,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Archa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473. 위의 번역은 필자 번역으로 이후 이 논문의 모든 번역 또한 필자의 번역이다.
 - 3 Steven M. Ortiz and Samuel R. Wolff, “A reevaluation of Gezer in the Late Bronze Age in light of renewed excavations and recent scholarship,” in *The Late Bronze and Early Iron Ages of Southern Canaan*, ed. Aren M. Maeir, Itzhaq Shai, Chris McKinny (Berlin, Boston: De Gruyter, 2019), 74.
 - 4 유진 메릴, 「제사장 나라-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곽철호 옮김), (서울: CLC, 1997). 124-132. 원저는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A History of Old Testament Israel* (Michigan: Baker Academic, 2008).

르나 서신서의 기록만큼 게셀의 결정적인 활동을 입증하지 못했다. 게셀은 그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일찍이 1902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최근까지 진행되었다. 하지만, 후기 청동기 시대, 특히 아마르나 시대의 게셀이 갖는 고고학 증거는 중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풍부한 증거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그렇다면 게셀과 함께 아마르나 서신서에 언급된 다른 도시 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본 논문은 우선 아마르나 서신서 속 게셀의 왕성한 활동과 오랜 발굴 기간 쌓인 고고학 자료를 비교할 것이다. 그 다음엔 아마르나 서신서 속 게셀과 관련해 언급된 다른 7개의 도시 국가들과 그들의 고고학 자료를 비교하여 고고학 자료와 문헌 기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아마르나 서신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포함한 고대 문헌의 기록들과 그 고고학 증거 자료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2. 아마르나 서신서

1887년 이집트의 텔 엘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아마르나 설형문자 서판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 또는 이집트 궁정과 시리아-팔레스타인 봉신들 사이의 서신이다. 거의 모든 서신서는 아멘호텝 3세(Amenhotep III, BCE 1417-1379)⁵와 아케나텐으로 더 잘 알려진 그의 아들 아멘호텝 4세(1379-1362 BCE)⁶의 통치 기간, 그리고 투탕카멘

5 저연대로는 1390-1352 BCE

6 저연대로는 1352-1336 BCE

의 통치 3년까지 총 25년이란 기간에 오고간다.⁷ 아마르나 서신서를 해독한 모란(William L. Moran)과 휴너가르트(John Huehnergard)는 “아시리아어, 후리아어, 히타이트어로 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아마르나 서신서의 언어는 바빌로니아어이지만 그 당시 바빌로니아의 표준어”⁸는 아니라고 말한다. 아마르나 서신서에 쓰인 바빌로니아어는 고대근동의 국제 외교와 무역을 위한 언어였다. 아마르나 서신서에 쓰인 언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후리-아카드어(Hurro-Akkadian)라고 불리며 언어의 형성 및 확산에서 후리족(hurrians)의 역할을 반영한다. 아마르나 서신서에 쓰인 바빌로니아어의 또 다른 특징은 레반트, 시리아 남부,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동시대 바빌로니아어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북방 민족들과의 나눈 서신의 지배적인 주제는 선물로 ‘형제애’를 결속시키는 사랑과 우정의 직접적인 표현인 반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봉신들과 이집트 행정부가 나눈 약 300통의 서신서들은 그 당시 이집트 행정부와 팔레스타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⁹ 아마르나 서신서는 후기 청동기 전기에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문헌 자료이다.

3. 아마르나 시대의 게셀과 고고학 증거 자료들

1) 아마르나 서신서 속 3명의 게셀 왕

게셀 왕들이 보낸 아마르나 서신은 밀킬루(Mikilu)가 보낸 EA 267-271, 아닷-다누 또는 발루-쉽티(Adda-danu 혹은 Ba'lu-šipti)가 보낸 EA 292-294, 마지막으로 야파후(Yapahu)가 보낸 EA 297-300와 EA 378로 총 12통이다. 게셀 왕을 언급한 다른 도시국가의 서신들은 EA 249-50(기티파달라의 발루), EA 253-54(세겜의 라바유), EA 287, EA 289-290(예루살렘의 압디-해바), EA 273(사푸마의 NIN-UR.MAḤ. MEŠ), EA 369(바로가 게셀의 통치자에게 보낸 편지)¹⁰ 등이다. 아마르나 서신서에는 3명의 게셀 왕이 등장한다. 밀킬루는 아마르나 서신서 속 첫 번째 왕이다. 파라오가 그를 게셀의 왕으로 파견했고 밀킬루의 게셀은 안전하고 평화로웠다(EA 267). 부분적으로 파손된 EA 268의 파편은 밀킬루가 파라오에게 46명의 여성 노예들과 5명의 남성 노예를 제공했다고 알려준다. 이 사실은 파라오가 밀킬루에게 보낸 서신에서 확인되는데(EA 369), 파라오는 이집트 궁수의 감독관인 한야(Hanya)를 밀킬루에게 보내면서 아름다운 술 맡을 40명의 여성과 은, 금, 아마포, 홍옥수, 각종 보석, 흑단 의자를 보내라고 요청한다.¹¹ 이집트 가신으로 파견된 밀킬루는 게셀의 방어를 위해 파라오에게 궁수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몰약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EA 269). 밀킬루는 또 다른 편지에서 이집트 사무관, 얀하무(Yanḥamu)가 은화 2000 세겜을 요구하고, 심지어 터무니없이 밀킬루의 아내와 아들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불평한다(EA 270:17-21).

게셀의 밀킬루 왕은 가나안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동맹을 주도하고 도시 국가의 다른 왕들을 자극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티파달라(Gitipadalla)의 왕 발루(Ba'lu-UR.SAG)는 자신의 노예들

이 밀킬루와 밀킬루의 장인이자 긴티-카멜(Ginti-carmel)의 왕인 타기(Tagi)¹²에게 당한 행위를 파라오에게 보고하고 파라오에게 밀킬루와 세겔의 라바유(Lab'ayu)의 동맹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한다(EA 249). 예루살렘 왕 압디-헤바('Abdi-Heba')는 밀킬루와 라바유의 두 아들이 예루살렘 도시를 점령하고 그것을 하피루('Apiru')에게 주었다고 불평했다(EA: 287:25-32). 밀킬루와 그의 장인 타기(Tagi)는 예루살렘 왕에게 속했던 킬투(Qiltu)를 점령했고 군대에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아스글론, 라기스와 동맹을 맺었다고 기록한다(EA 287:10-19). 그러나, 그 동맹은 견고하지 않았다. 라바유와의 동맹은 곧 해체되었고 라바유는 게셀을 침략하여 밀킬루와 격한 전투를 치룬다(EA 253; 254). 따라서, 밀킬루는 하피루로부터 그의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긴급히 파라오에게 군대를 투입해달라고 간청하게 된다(EA 271).

밀킬루의 후계자들은 밀킬루 말기의 불안정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했다. 게셀은 더 이상 가나안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없었고, 두 후계자들은 다른 도시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아마르나 서신서 속 게셀의 두 번째 통치자는 아파후(Yapaḥu)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파라오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낸다. 그는 수티족(Suteans, EA 297)과 하피루('Apiru, EA 298; 299)의 습격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파라오의 도움을 간청한다. 심지어 동생이 하피루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자신의 원수가 되었다고 보고한다(EA 298:14-19). 아마르나 시대 게셀의 마지막 왕은 아다-다누(Adda-danu) 또는 발루-쉽티(Ba'lu-šipṭi)인 것 같다. 아다-다누는 이집트 관리인 마야(Maya)를 언급하는데, 나아만(Na'aman)은 이

12 암석학 연구에 따르면, 타기가 통치했던 긴티-카르멜(키르밀, Kirmil) 시는 “남쪽의 아르콘 강 수문지와 북쪽의 갈멜 능선 사이의 전체 해안 평야”에 있다. Yuval Goren, Israel Finkelstein, Nadav Na'aman, “The Seat of Three Disputed Canaanite Rulers According to Petrographic Investigation of the Amarna Tablets”, *Tel Aviv: Journal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29, no. 2(2002): 234.

집트의 고위 관리인 마야가 아마르나 서신서의 마지막 시기에 가나안의 최고 관리로 지명되었을 것으로 제안한다.¹³ 아다-다누는 파라오에 대한 그의 충성을 반복 맹세하고 자파(Jaffa)에 파라오의 궁수들이 도착하면 사용할 집을 지었다고 보고한다(EA 292; 293; 294). 아다-다누는 자파(Jaffa)를 통치했을 굴라투(Gulatu)의 아들 페야(Peya)와 치른 전쟁을 보고하고 그가 아다-다누가 지은 집을 약탈했다고 불평했다(EA 292). 그 집은 아다-다누가 이집트 궁수들을 위해 지은 건물인데, 자파의 페야는 그 집을 지키도록 파견한 군사들도 잡아갔다(EA 294).

두 번째 왕과 세 번째 왕은 부자지간이 아닌 것 같다. 제임스 F. 로스(James F. Ross)는 “그들은 동시대 인물인 것이 확실하다. 둘 다 이집트의 관리자 마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292:33; 300:26). 따라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¹⁴고 주장한다. 사푸마의 여성 왕은 그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땅은 하피루에 의해 폐허가 되었다고 썼다(273:8-14). 그녀는 밀킬루의 두 아들이 간신히 죽임을 피했다고 알렸는데(EA 273:15-24), 이후 아마르나 서신서에서 게셀에 대한 언급은 사라진다.

요컨대 게셀의 통치자인 밀킬루는 초기 아마르나 시대에 남부 팔레스타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웃 왕들을 통합하고 다른 도시 국가의 재산을 찬탈하기도 했다. 더욱이 게셀은 남녀와 각종 보석과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공급할 여유가 있었다. 게셀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이집트의 통제와 가나안 도시 국가 간의 깨어진 동맹으로 제한되고, 아마르나 시대 말기엔 수티족과 하피루, 그리고 자

13 Nadav Na'aman, *Canaan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Collected Essays: Vol.2*, (Indiana: Eisenbrauns, 2012), 101.

14 James F. Ross, “Gezer in the Tell El-Amarna Letters,” *The Biblical Archaeologist* 30 (1967): 69.

파왕의 불공정한 습격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2) 게셀의 발굴 역사

게셀의 첫 발굴은 R.A.S. 매칼리스터(Macalister)가 이끈 팔레스타인 탐사 기금(Palestine Exploration Fund)에 의해 진행된다. 제 1차 세계 대전 전후(1913-14 및 1923-24)에는 레이몬드 찰스 웨일(Raymond-Charles Weill)이 수행했다. 윌리엄 G. 디버(Dever)와 조 D. 세거(Seger)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아메리카 게셀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디버는 1984년부터 1990년까지 두 번의 추가 발굴을 진행한다. 최근 탠디 고고학 연구소(Tandy Institute for Archaeology)의 스티븐 오르티즈(Steven M. Ortiz)와 사무엘 울프(Samuel R. Wolf)가 게셀에서 새로운 발굴을 진행했고, 더불어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원과 이스라엘 공원 당국은 게셀 수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3) 아마르나 시대의 게셀과 고고학적 증거들

중기 청동기 시대의 게셀은 최고의 확장과 번영을 누렸다. 풍부한 고고학 자료들과 함께 대규모 건축 활동은 “정치 조직, 특히 중앙 집중식 관료 기구를 지원하는 강력한 강제 부역이 동원됐음”¹⁵을 시사한다. 히소스(Hyksos)의 신흥 정치와 그로 인해 남부 레반트 전역에 미친 영향력이 중기 청동기 게셀의 번영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중기 청동기의 심각한 파괴층은 후기 청동기 초기 투트모세 3세(기원전 1482년경)의 첫 번째 원정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¹⁶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마르나 시대(초기 LB II)의 증거는 연속된 게

15 Master,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Archaeology,” 170.

16 David N. Freedma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Bantam Doubleday Dell Publishing Group, Inc., 1992), 1000.

셀의 마지막 발굴까지도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디버는 Palace 14120이 아마르나 시대 관료의 거주지거나 행정 센터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¹⁷ “Palace 14120”이 중기 청동기에서 후기 청동기 IIA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르나 시대 가나안 게셀 왕궁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디버는 그 궁전이 유난히 잘 지어진 6피트 두께의 벽을 가지고 있고, 두꺼운 회 반죽 표면이 바닥과 야외 안뜰, 돌로 덮인 배수구를 가로질러 이어졌다고 본다. 또한, 작은 물건 중에는 이집트 수입품, 특히 아마르나 시대의 화약 그릇 조각, 유리구슬, 화약 펜던트, 풍뎅이 모양 인장, 금박 조각, “Sobek-nefru-ankh”라는 이름이 새겨진 조각상 받침대등이 발견되었고. 게셀 현지 물건으로는 구리 제련을 위한 점토 도가니와 완벽하게 보존된 약 6인치 길이의 청동 뱀이 있다고 보고한다.¹⁸ 그러나 Mazar는 디버의 결론에 의구심을 드러냈는데, “이 건물에서 건축 단계나 바닥 채포장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건물의 극심한 파괴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부한다. 그것은 그냥 버려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발견된 자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물의 기초와 전체적 쓰임이 모두 14세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¹⁹고 반박했다.

최근 탠디 고고학 연구소는 게셀 서쪽 언덕에서 후기 청동기의 작은 파괴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메르넵타(Merneptah) 시대(LB IIB)의

17 W. G. Dever, H. D. Lance, R. G. Bullard, *Gezer IV: The 1969-71 Seasons in Field VI, the “acropolis”, Annual of the Hebrew Union College/Nelson Glueck School of Biblical Archaeology* 4, (Jerusalem: Hebrew Union College, 1986), 43.

18 Freedma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1000-1001.

19 Amihai Mazar, “Concluding Remarks,” in *Timnah (TEL BATASH) III: The Finds from the Second Millennium BCE*, ed. Nava Panitz-Cohen and Amihai Mazar, *Qedem Monographs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45 (The Hebrew University, 2006), 326.

것으로 여겨진다.²⁰ 지속적인 발굴로 이 파괴층은 더 넓게 확장되었고 후기 청동기의 파괴층 연대에 대한 일부 증거가 철기 시대 벽 아래에서 발굴되었다.²¹ 두 개의 남북 벽 사이에 재와 탄 흙벽돌의 파괴층이 발굴되었다. 아멘호텝(Amenhotep) III의 풍덩이 인장과 3개의 실린더 직인뿐만 아니라 여러 용기(요리 냄비, 크레이터, 저장 항아리)가 파괴층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13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구조물에는 인간의 유골이 남아있는 단일 귀족 가옥이었으며 가혹한 파괴의 증거를 갖고 있다.²² 그러나 아마르나 시대의 게셀에 대한 고고학적 흔적은 여전히 미비하여 아직까지 아마르나 서신서에 그려진 남부 팔레스타인의 핵심 도시 국가로서의 게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4. 아마르나 시대 게셀과 관련된 7개의 도시 국가들과 고고학적 증거들

그렇다면, 아마르나 시대의 다른 도시 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마르나 서신서에 언급된 다른 도시 국가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게셀에서 보낸 12통의 편지는 동시대 다른 도시 국가들의 서신과 비교할 때 단일 도시 국가에서 보낸 편지로는 상당한 숫자이다. 가자(Gaza)는 다른 고대 문헌에서 남부 레반트의 주요한 이집트 기지로 간주되지만, 아마르나 서신서에서는 가자에서 보낸 편지가 없다. 해안 평원

20 Steven M. Ortiz and Samuel R. Wolff, "Gezer 2013 Report," 2013. 7.

21 윗글, 7.

22 Steven M. Ortiz and Samuel R. Wolff, "A reevaluation of Gezer in the Late Bronze Age in light of renewed excavations and recent scholarship," in *The Late Bronze and Early Iron Ages of Southern Canaan*, ed. Aren M. Maeir, Itzhaq Shai, Chris McKinny (Berlin, Boston: De Gruyter, 2019), 82.

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 보낸 편지도 거의 없다. 현재의 아마르나 서판이 전체의 일부일 수 있는데, 테베(Thebe)에서 새로운 수도인 아케타톤(Akhetaten)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실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셀과 다른 도시 국가들과의 비교는 게셀 서신서에서 언급된 7개의 도시 국가로 제한하기로 한다. 아마르나 서신서에서 게셀과 관련된 도시 국가는 기티파달라(EA 249-50), 세겜(EA 253-54), 사푸마(EA 274), 예루살렘(EA 287, 289-300), 긴티-카르멜(EA 249), 아스글론(EA 287), 그리고 라기스(EA 287)다. 순차적으로 각각의 도시 국가에서 보내진 서신의 내용과 고고학 자료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1) 기티파달라(Gitipadalla)

기타파달라의 왕 바루(Ba'lu-UR.SAG)는 게셀과 세겜의 왕들을 비난하고(EA249) 파라오의 책임을 묻는(EA 250) 두 통의 편지를 보낸다. EA 250에 따르면 세겜의 라바유는 šunama, Bur(q)una, Ḥarabu 및 Gittirimmunima 등의 도시 국가를 침략했고 기티파달라의 마을들까지 침략했다. 이 도시는 나중에 바루에 의해 파라오에게 넘겨진다.

암석학 조사를 실시했던 고렌(Goren)과, 핑켈스타인(Finkelstein), 나아만(Na'aman)은 기티파달라가 텔 레홉(Tel Rehov)이라고 주장한다.²³ 마자르(Mazar)는 텔 레홉(Tel Rehov)의 발굴 결과 후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초기의 조밀한 연속 점거 순서의 증거가 “하부 도시(Arae D)의 서쪽 경사면 참호에서 확인되었다”²⁴고 보고한다. 고렌과, 핑켈스타인, 나아만은 또한 이집트 세티(Seti)가 “레홉의 통치자”를 반역적인 지도자

23 Goren, Finkelstein, and Na'aman, “The Seat of Three Disputed Canaanite Rulers According to Petrographic Investigation of the Amarna Tablets,” 226.

24 Amihai Mazar and Nava Panitz-Cohen, “It Is the Land of Honey: Beekeeping at Tel Rehov,” *Near Eastern Archaeology* 70, no. 4 (2007): 203.

로 묘사했으며 “레훅이 도시 국가의 수도”인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한다.²⁵ 그러나, 의심스러운 점은 레훅이 강력한 독립 도시 국가였다면 왜 도시이름이 아마르나 시대의 기티파달라에서 불과 50년 사이에 레훅으로 변경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텔 레훅의 D-10 지역이 기원전 1550/1500-1300/1250 사이 후기 청동기 시대의 거주지로 간주되지만 “용골형의 후기 청동기 그릇 하나를 제외하고는 토기나 기타 발견물이 없다.”²⁶ 마자르는 레훅의 풍부한 고고학적 자료들은 기원전 12세기에서 8세기로 늦춰진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레훅이 아마르나 시대의 기티파달라라고 해도 그 증거는 안전하지 않다.

2) 사푸마(Şapuma)

사푸마의 여성 왕은 두 개의 아마르나 서신(EA 273, 274)을 보냈다. 그녀는 ‘하피루’와의 치열한 전쟁과 밀킬루의 두 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발했다. 그녀는 사푸마가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하피루(Apiru)로부터 사푸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EA 274). 이 도시의 위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푸마가 요르단 계곡에 있는 성서의 사본(Şaphon)과 일치한다고 제안하지만 지정학적 근거에 대한 이견이 있다.²⁷ 따라서 아마르나 시대의 사푸마(Şapuma)의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고고학적인 명확한 증거도 없다.

25 Goren, Finkelstein, and Na'aman, *윗글*, 226.

26 Amihai Mazar, “The 1997-1998 Excavations at Tel Rehov: Preliminary Report,” *Israel Exploration Journal* 49, no. 1-2 (1999): 1-42.

27 Nadav Na'aman, *Ugarit-Forschungen* (Neukirchen-Vluyn, 1979), 680 n.33.

3) 예루살렘(Jerusalem)

예루살렘 왕 압디-헤바는 밀킬루와 그의 동맹자들(라바유의 두 아들과 밀킬루의 장인 타기, 그리고 아스글론과 라기스)의 공격을 받았고 이에 아마르나 시대의 파라오에게 여섯 통의 편지(EA 285-290)를 보낸다.

후기 청동기 시대 예루살렘의 유물이 북쪽 언덕에서 발견되었다. 나아만에 의하면 북쪽 언덕엔 “옹벽의 단단한 기초가 드러났다. 24피트 높이로 보존되었다. 이 성벽은 십자형으로 쌓였고 그 사이의 공간은 돌로 채워졌다.”²⁸ 그러나, 이 발굴에서 알려진 건물이 산간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지지하는 왕궁이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지는 않는다.²⁹ “예루살렘의 힘은 주변 지역에서만 느껴졌고, 우리가 아는 한 그 지역을 넘어 확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³⁰ 기원전 1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빈약한 토기들 또한 아마르나 시대 예루살렘의 나약함을 보여준다.³¹ 이 시기엔 아마르나 문서에 언급된 대로 도시 국가들의 공격을 받은 극심한 파괴층도 발견되지 않았다.

4) 긴티 카르멜(Ginti-carmel)

긴티-카르멜(Ginti-carmel, Ginti-Kirmil)은 밀킬루의 장인인 타기(Tagi)의 소유였다(EA 289). 타기는 게셀의 밀킬루와 동맹을 맺고 기티파달라, 예루살렘, 그리고 켈투를 공격했다(EA289).

암석학 조사에 따르면 샤론 평지(Sharon Plain)의 텔 자트(Tell Jatt)가 긴티-카르멜(Ginti-Kirmil)의 그럴듯한 후보다. 자트 주변에서 발견된 무덤에서 후기 청동기 토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³² 그러나, 이 시기 텔 자트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흔적도 없다.

32 Goren, Finkelstein, and Na'aman, *윗글*, 233.

5) 아스글론(Ashkelon)

아스글론 왕은 이집트 아케테톤 궁에 적어도 7통의 편지(EA 320-326, 370)를 보냈는데, 그는 파라오의 군대를 위해 음식, 음료, 곡식, 기름, 소등을 제공하고 충성을 약속한다. 아스글론 서신서엔 적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긴급한 탄원은 없다. 예루살렘 왕 압다-헤바는 게셀이 이집트 왕의 적인 ‘하피루’에게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아스글론, 라기스와 함께 음모를 꾸몄다고 폭로했는데, 여기서 하피루에게 동조한 아스글론이 등장한다.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1550-1200년)의 아스글론엔 사춘기 소녀의 유골이 잘 보존된 매장지가 하나 발견된다. “유골과 함께 아름다운 수입 도자기 조각, 이집트 풍덩이 인장 세 개, 얇은 그릇에 담긴 음식 재물이 묻혀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오래 전에 썩은 옷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개의 토글 편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무덤은 흰색 석고로 코팅된 진흙벽돌로 된 둥근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³³ 그러나 매장지 외에 가나안 도시 국가로서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빈약한 아스글론의 고고학적 증거는 아마르나 시대 이후 후기 청동기 IIB의 풍부한 이집트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아스글론은 기록상 후기 청동기 시대까지 이집트 종주권 아래 이집트의 국경 도시로 보인다. 카르나크 사원의 부조는 메렌프타(Merenptah)의 이집트 군대가 아스글론(Ashkelon)을 습격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아스글론이 사악해졌을 때, 폐하는 그 성을 취해 비참하게 했다. 그 성은 말한다: 폐하에게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폐하의 국경을 넘는 사

33 David Schloen, “Recent Discoveries at Ashkelon,” *The Oriental Institute News and Notes* 145 (Spring 1995): 145.

람에게는 화가 있다.”³⁴ 아스글론은 이집트가 다스린 팔레스타인 국경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왕성한 기록과 다르게 아마르나 시대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아스글론은 특별한 고고학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6) 라기스(Lachish)

아마르나 시대에 라기스에서는 몇 통의 서신(EA 328-329)이 보내졌다. 라기스 왕은 아스글론 왕처럼 파라오에게 충성과 순종을 약속한다. 라기스는 계셀 왕 밀키루와 관련해서 밀키루와 그의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밀키루 군대에 식량을 제공했다(EA 287).

후기 청동기 시대에 라기스는 분명히 중기 청동기 도시의 즉각적인 파괴로 인해 한때 크기가 줄고 약해졌다가 점차 발전하여 그 중요성을 되찾았다. 라기스에서 발굴된 아마르나 시대의 한 신전은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들뿐만 아니라 건축 기술에서도 이집트 요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보여준다. 우쉬시킨은 “예를 들어, 전형적인 이집트 팔각형 기둥, 계단, 그리고 벽화에 강조된 밝은 파란색은 엘-아마르나 시대 이집트 벽화의 공통적인 특징”³⁵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라기스는 후기 청동기 내내 요새화된 흔적이 없다.³⁶

34 J. B. Pritchard,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with Suppl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256.

35 Christa Clamer and David Ussishkin, “Canaanite Temple at Tell Lachish,” *Biblical Archaeologist* 40, no. 2 (1977): 76.

36 윗글, 76; Y. Garfinkel, M. Hasel, M. Klingbeil, H. Kang, G. Choi, S. Chang, and C. Ramsey (2019), “Lachish Fortifications and State Formation in the Biblical Kingdom of Judah in Light of Radiometric Datings,” *Radiocarbon*, 61(3), (2019), 695-712.

7) 세겜(Shechem)

아마르나 시대 라바유(Lab'ayu)는 세겜의 왕이었으며 왕권은 두 아들에게 계속되었다. 세겜 왕은 애굽의 권력 공백을 틈타 예루살렘 주위부터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라바유(Lab'ayu)는 게셀왕 밀킬루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과 그에 속한 남쪽의 도시들(EA 249; 250과 북쪽의 기티파달라(EA 287)를 공격했다.

세겜은 석기시대부터 오랫동안 거주 흔적을 보인다. 히소스 시대에는 거대한 요새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집트에게 정복된 후 세겜은 아주 작게 축소된다. 세겜의 후기 청동기 IIA 시대는 후기 청동기 문화의 정점이었다. “도시 번영의 확장 수준은 동쪽 성문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데, 동문은 경비 초소가 강화됐고 판석으로 포장되었다. 관문 바로 남쪽에는 역시 판석으로 포장된 열린 공간이 있어 군대를 소집하고 공개 집회를 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³⁷ 일부 다른 건물들과 돌담에서 발굴된 토기를 통해 도시의 번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화재에 의한 파괴는 라바유 도시의 종말을 가져왔다. 그 잔해는 도시의 거의 모든 지역을 뒤덮고 있다.”³⁸ 세겜은 아마르나 시대의 분명한 고고학적 증거를 보여준다.

5.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 간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아마르나 서신서에 등장하는 게셀과 그와 관련된 다른 일곱 도시 국가의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보았다. 아마르나 시대 게셀의 고고학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Palace 14120”은 아마르나 시대의 건물로 제안되지만 마자르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 제안에 반대했다. 사푸마(Şapuma)의 위치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아마르나 시대

www.kci.go.kr

사푸마의 고고학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기티파달라(Gitipadalla)는 일부 고고학자들이 몇 가지 의문을 갖지만 텔 레홉(Tel Rehov)으로 간주된다. 텔 레홉은 후기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촘촘한 연속적 거주 흔적을 보여주지만, 아마르나 시대에는 토기들과 기타 발견물이 거의 없다. 긴티-카르멜(Ginti-Kirmil)과 예루살렘, 아스글론(Ashkelon)도 기티파달라(Gitipadalla)와 같은 경우로 일부 거주 흔적은 있으나 토기 자료 등 아마르나 시대의 증거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아마르나 시대의 세겜은 건물과 토기 자료에서 도시의 번영을 확인 할 수 있다. 화재로 파괴된 잔해가 도시의 거의 모든 지역을 뒤덮고 있다. 아마르나 시대의 라기스 또한 이집트 건축의 영향을 받은 신전으로 증명될 만큼 활발한 증거를 보여준다.

이처럼, 아마르나 시대 게셀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8개 도시 국가의 고고학적 증거는 아마르나 서신서에 기록된 것만큼 충분하지 않다. 5개 도시에는 거주의 흔적은 있지만 발견된 고고학 자료 증거가 거의 없고, 세겜과 라기스 두 도시만이 방대한 고고학 자료의 양으로 명확한 거주 흔적을 말해준다. 하나의 도시 국가는 여전히 그 위치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마르나 시대의 고고학 증거 자료들은 아마르나 서신서의 문헌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조사된 게셀을 포함한 8개 도시 국가 중 오직 라기스와 세겜 두 도시만이 충분한 고고학적 증거를 보여줄 뿐 나머지 6개의 도시들은 빈약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마르나 문서와 고고학 자료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헌과 고고학 자료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예민하다. 이미 지난 세기 동안 성서와 고고학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경험되었다. 19세기 촉발된 성서의 저작 시기와 저작 방법에 대한 비평에 반응하여 20세기 초 올브라이트 학파

는 고고학의 증거로 성서의 역사성을 증명하려 시도했고 대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고고학 발굴 자료들에 대한 해석은 성서가 고대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고 이후 고고학 해석에서 성서의 기록은 거의 배제되었다.³⁹ 그리고, 그 경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성서와 고고학에서 보여주었던 간극이 게셀을 중심으로 한 아마르나 서신서의 기록과 고고학 자료 사이에서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아마르나 서신서는 수세기 동안 전달되어 완성된 성서도 아니고, 왕의 업적을 과장하여 포장한 전승 기념비도 아닌, 3천 년이 넘도록 땅 속에 고스란히 묻혀있던 중주국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봉신국가들 간의 긴박한 역사적 증언이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고대 문헌과 고고학 자료는 역사 재구성의 필수적인 두 축이다. 고고학 자료는 고대 문헌 없이 역사를 재구성하기 어렵고, 문헌은 고고학 자료로 그 실체를 확인 받을 때 사료로서의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고대 문헌과 고고학 자료 사이의 합의가 쉽지 않다. 미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디버는, 동료 학자들이 시리아-팔레스타인 고고학자들이 편협하고, 순진하며, 학문적 고고학 발전에 기여할 능력이 없다고 일축한 것에 불평을 드러내면서, 시리아-팔레스타인 고고학자들은 도리어 수백 개의 발굴지에서 수집된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이런 훌륭한 사례 연구로 세계 다른 고고학 동료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⁰ 그

39 Thomas W. Davis, *Shifting Sands: The Rise and Fall of Biblical Archa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이 책은 성서고고학으로 출발했던 성서와 고고학이 20세기 동안 겪어온 관계의 변화를 연구했다.

40 William G. Dever, "Syro-Palestinian and Biblical Archaeology: Into the Next Millennium," in *Symbiosis, Symbolism, and the Power of the Past: Canaan, Ancient Israel, and Their Neighbors from the Late Bronze Age through Roman Palaestina*, ed. William G. Dever and

에 반해 프로반과 롱맨 III, 롱은 고고학적 자료가 더 이상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고 고고학 자료의 해석은 이중적 사고를 지녔다고 주장하는데, 고고학 자료의 객관성은 성서의 증언과 상충된다고 생각할 때 확고하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고고학 자료의 비객관성은 고고학 자료가 성서의 증언과 일치한다고 주장할 때 제기된다고 비평했다.⁴¹ 이들은 모든 고고학자들도 사실 다른 역사적 서술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보단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를 들려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⁴²

이에 대한 레스터 L. 그래비(Lester L. Grabbe)는 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해석에 있어 두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⁴³ 첫째는, 고고학자들은 고고학 자료에 대한 분석이 문헌 자료에 대한 분석만큼 주관적이고 해석적이란 인식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래비는 고고학 자체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란 인상을 주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석적 맥락의 필요성과 과학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는, 정반대인데, 고고학 자료가 문헌보다 객관적이지 않다고 가정하여, 고고학적 가치를 낮추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은 그 연구가 주관적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역사학자들도 고고학의 가치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Seymour Gitin (Centennial Symposium, W.F. Albright Institute of Archaeological Research and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3), 515.

41 Iain W. Provan, Tremper Longman, and V. Philips Long,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 63.

42 윗글, 63.

43 레스터 L. 그래비, 「고대 이스라엘 역사: B.C. 2,000년경~B.C. 539년」 (류광현/김성천 옮김) (서울: CLC, 2022), 40-41. 원제는 Lester L. Grabbe, *Ancient Israel: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London: T & T Clark, 2007).

6. 결론

지금까지 계셀을 중심으로 8개의 도시 국가들에 대한 아마르나 서신서의 기록과 고고학 자료 사이의 간극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고대 문헌과 고고학 자료 사이의 간극에 대한 해석은 문헌 연구와 고고학 자료 연구 사이에서 서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라 고고학과 역사학이 지향해야 할 각각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고고학은 주관적이고 해석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역사학은 고고학의 가치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문헌 자료로서의 성서는 아마르나 서신서와는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고고학의 자료 해석이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고고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겪어온 성서와 고고학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팔레스타인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례로, 예전엔 중기 청동기의 도시들이 델타 지역에서 희소스를 쫓아낸 이집트 18왕조의 초기 원정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해석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중기 청동기 도시들의 파괴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받아들인다.⁴⁴ 고고학 자료의 분석에 있어, 그동안 사료로 배제되었던 성서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해석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또한, 고고학 자료들은 과거에 문헌 성서의 서사와 인물들에게 생생한 실재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텔단 석비는 다윗의 왕조를, 메사 석비는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모압 원정을, 니느웨의 라기스 부조

44 David Ussishkin, *Biblical Lachish: A Tale of Construction, Destruction, Excavation and Restoratio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Biblical archaeology society, 2014), 121./ Hiroaki Watamabe, "Middle Bronze-Late Bronze Transitional Period in Palestine" (Arizona, The University of Arizona, 2002), 107-14, <http://hdl.handle.net/10150/279960>.

는 앗수르 산헤립의 유다 원정을 구체화시켰다. 고고학 연구가 성서 연구에 가져다준 귀한 역사적 증언들이다. 이에 앞으로 더 많은 고고학 자료들이 발굴되고 그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여전히 논쟁중인 성서 속 사건들에 대한 자물쇠가 풀리길 기대해도 좋을 때가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 강후구,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구약 시대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4권 2호 (2018년 6월), 202-225.
- 레스터 L. 그래비, 「고대 이스라엘 역사: B.C. 2,000년경~B.C. 539년」 (류광현/김성천 옮김), (서울: CLC, 2022). 원제는 Lester L. Grabbe, *Ancient Israel: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London: T & T Clark, 2007).
- 유진 메릴, 「제사장의 나라-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곽철호 옮김), (서울: CLC, 1997). 원제는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A History of Old Testament Isarel*. (Michigan: Baker Academic, 2008).
- Clamer, Christa, and David Ussishkin, “Canaanite Temple at Tell Lachish,” *Biblical Archaeologist* 40, no. 2 (1977): 71-76.
- Davis, Thomas W., *Shifting Sands: The Rise and Fall of Biblical Archa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Dever, W. G., H. D. Lance, and R. G. Bullard, *Gezer IV: The 1969-71 Seasons in Field VI, the “acropolis”, Annual of the Hebrew Union College/Nelson Glueck School of Biblical Archaeology* 4. (Jerusalem: Hebrew Union College, 1986)
- Freedman, David 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Bantam Doubleday Dell Publishing Group, Inc., 1992.
- Garfinkel, Y., M. Hasel., M. Klingbeil, H. Kang, G. Choi, S. Chang, and C. Ramsey, “Lachish Fortifications and State Formation in the Biblical Kingdom of Judah in Light of Radiometric Datings.” *Radiocarbon*, 61(3) (2019): 695-712.
- Geva, H. “Jerusalem: The Early Periods and The First Temple Period,” Stern, E. (ed.)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3), 698- 716.
- Goren, Yuval, Israel Finkelstein, and Nadav Na’aman. “The Seat of Three Disputed Canaanite Rulers According to Petrographic Investigation of the Amarna

- Tablets.” *Tel Aviv: Journal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29, no. 2 (2002): 221–37.
- Master, Daniel M.,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Archa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Mazar, Amihai, “Concluding Remarks.” In *Timnah (TEL BATASH) III: The Finds from the Second Millennium BCE*, edited by Nava Panitz-Cohen and Amihai Mazar. Qedem Monographs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45. The Hebrew University, 2006.
- Mazar, Amihai, “The 1997–1998 Excavations at Tel Rehov: Preliminary Report.” *Israel Exploration Journal* 49, no. 1–2 (1999): 1–42.
- Mazar, Amihai, and Nava Panitz-Cohen. “It Is the Land of Honey: Beekeeping at Tel Rehov.” *Near Eastern Archaeology* 70, no. 4 (2007): 202–19.
- Moran, William L.,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Moran, William L., and John Huehnergard. *Amarna Studies: Collected Writings*.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 Na’aman, Nadav, *Canaan in the Second Millennium BCE Collected Essays: Vol. 2*. Indiana: Eisenbrauns, 2012.
- _____, “The Shephelah according to the Amarna Letters.” In *Fire Signals of Lachish: Studies in the Archaeology and History Israel*, edited by Israel Finkelstein and Nadav Na’amzn.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 _____. *Ugarit-Forschungen*. Neukirchen-Vluyn, 1979.
- Negev, Avraham, *Archaeological Encyclopedia of the Holy Land*. 3rd ed. New York: Macmillan General Reference, 1990.
- Ortiz, Steven M., and Samuel R. Wolff. “Gezer 2013 Report,” 2013.
- _____, “A reevaluation of Gezer in the Late Bronze Age in light of renewed excavations and recent scholarship,” in *The Late Bronze and Early Iron Ages of Southern Canaan*, ed. Aren M. Maeir, Itzhaq Shai, Chris McKinny (Berlin, Boston: De Gruyter, 2019).
- Pritchard, J. B.,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with Suppl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Provan, Iain W., Tremper Longman, and V. Philips Long.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
- Ross, James F., “Gezer in the Tell El-Amarna Letters,” *The Biblical Archaeologist* 30

(1967): 62-70.

Schloen, David, "Recent Discoveries at Ashkelon." *The Oriental Institute News and Notes* 145 (Spring 1995).

Ussishkin, David, *Biblical Lachish: A Tale of Construction, Destruction, Excavation and Restoration*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Biblical archaeology society, 2014)

Watamabe, Hiroaki, "Middle Bronze-Late Bronze Transitional Period in Palestine." The University of Arizona, 2002. <http://hdl.handle.net/10150/279960>.

검색어

계셀, 아마르나, 고고학, 구약

[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Material Evidence and Written Documents in the Light of Gezer in the Amarna Period

Yoonee Ah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material evidence and ancient documents in the light of Gezer in the Amarna period. Some gaps appear between ancient documents and archaeological materials in reconstructing the ancient history. While some unearthed archaeological evidences are correctly identified with written texts, all the written records are not confirmed in the archaeological material evidence. In particular, the city state of Gezer was recorded as one of the key roles in the Amarna period but the archaeological data can not support its significant role as recorded in the correspondence of the Amarna Letters.

Thus this research tries to compare the archaeological data of Gezer with the written data of Amarna letters as well as the other seven city states mentioned in the twelve letters sent from Gezer. The Amarna Letters sent from the rulers of Gezer are EA 267-271 (Milkilu), EA 292-294 (Adda-danu or Ba'lu-šipti), EA 297-300 (Yapahu), and EA 378 (Yapahu). The Letters from other rulers mentioned the rulers of Gezer are EA 249-50 (Ba'lu-UR.SAG of Gitipadalla), EA 253-54 (Lab'ayu of Shechem), EA 273 (NIN-UR.MAḪ. MEŠ of Šapuma), EA 287, EA 289-290 (Abdi-heba

www.kci.go.kr

of Jerusalem), and EA 369 (one letter from Pharaoh to the ruler of Gezer). The other seven city states are Gitipadalla (EA 249-50), Shechem (EA 253-54), Sapuma (EA 274), Jerusalem (EA 287, 289-300), Ginti-carmel (EA 249), Ashkelon (EA 287), and Lachish (EA 287).

Among the researched eight city-states including Gezer, only two city-states, Lachish and Shechem, reveal ample material evidence. The rest of them show meager evidence or nothing. Archaeology might not yet find material remains, or archaeology might incorrectly interpret material remains. Conflicts within the Canaanite city-states seem to be not as severe as those drawn in the Amarna Archives because only the city of Shechem exposes the debris of destruction by fire in the Amarna period.

In conclusion, reconstruction of ancient history should not focus on one side. We recognize that archaeological data would not be objective, while scholars maintain that archaeological data is useful.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valid interpretation of documents and archaeological data, as well as ancient documents and archaeological excavation materials.

key words

Gezer , Amarna Letters, Archaeology, Old Testament

투고일 : 2023년 02월 21일

심사일 : 2023년 02월 27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2월 27일

www.kci.go.kr